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 2019. 5. 17(금) 총 4매(본문3)		
담당 부서 건설안전과	담당 자 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장은석, 주무관 장형석 • ☎ (044) 201-3573, 3574, 3575			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1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7.(금) 10:3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 ... “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” 17일 동탄 건설현장서 안전슬로건 공개

-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,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\*이 개최됐다.

\* 선포식: 17일 10:30~ / 동탄 건설현장(화성시 산척동 산77번지 / (주최)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 (주관)한국시설안전공단

-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고,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 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으며,

-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·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-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건설안전 슬로건 “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”에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정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,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담았다.

- 이번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,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등을 통해 후보안이 마련되었고, 국토교통부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확정됐다.
-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, VR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.
  -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함께 슬로건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, 이후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에도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, VR기술을 활용한 추락 사고 예방교육에도 직접 참여했다.
- 올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.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\*,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(485/971명)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. 이 중에서도 추락사고가 60% (290/485명)를 차지한다.
  - \* (연도별 사망자) '14년 434 → '15년 437(3 ↑) → '16년 499(62 ↑) → '17년 506 (7 ↑) → '18년 485(21 ↓)
  -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4월에는 「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」을 발표했다. 공공공사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(시스템비계) 사용을 의무화했고,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용자, 보증·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사업\*을 5월 1일부터 개시했다.
    - \*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저리 용자, 보증·공제수수료 할인 등 지원사업 개시 (5.1.,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)
  - 또한,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사, 감리사,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, 지난 해

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정책의지와 대책의 세부과제들을 일선 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수막을 설치하고,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중 현장 방문 캠페인을 실시하고,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.

○ 지방국토청, 발주청 등 기존에 현장점검을 하던 기관들은 물론 노동조합과 건설 유관협회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,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.

○ 추락사고 방지 UCC 공모전\*(<http://constructsafety.org>)을 개최하고, 사고사례와 교육자료, 홍보영상 등을 공유하기 위해 건설안전 유튜브 채널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.

\* (주제) 추락사고 방지 / (형식) 5분 이내 동영상 / (자격) 국민 누구나(개인 또는 팀)  
(접수) 5.6. ~ 5.31., <http://constructsafety.org> / (시상) 대상 300만원 등

□ 김현미 장관은 “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.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‘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’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”면서,

○ “202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(17년 506명 → ‘22년 253명)으로 줄이기 위해,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,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장은석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슬로건 설명

- (총괄) 초보자는 물론 숙련된 근로자(베테랑)라도 불안정한 작업 환경에서는 재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, 모든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의미
- (서체) 추락에 의한 충격을 베테랑 글씨체가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냈고, 붉은 색으로 경각심을 강조하였음
- (그림)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모습으로, 안전모 턱끈을 올바르게 체결해야만 추락에 의한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,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 중에 안전모가 먼저 벗겨지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

## □ 슬로건 그림

